

## 강이연展

9. 3~13

공근혜갤러리

글 | 양윤정·대림미술관 큐레이터

익숙한 화가의 화실처럼 흰색의 캔버스들이 무심히 놓여져 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캔버스 천 뒤로 사람의 움직임이 전해질 뿐이다. 흑백 사진이 라이트 박스 안에 자리하고 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심장박동에 맞추어 빛은 오히려 서서히 꺼져 간다. 고요히 놓여진 나무 책상 위, 텍스트들이 부유하고 있다. 읽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그것들은 내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공근혜 갤러리에서 열리는 강이연의 개인전 <BETWEEN>은 관람자를 끊임없이 놀라게 한다. 천을 통해 전해지는 생생한 인체의 움직임에 놀라고, 다가갈수록 볼 수 없는 사진에 놀라고, 읽기 위해 노력할수록 산산이 부서져가는 텍스트에 놀란다. 그리고 실제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작가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비디오, 인터랙티브 영상, 3D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란다.

작가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 환경을 통해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현실과 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그 경계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는 회화를 통해 처음 현실과 가상 사이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작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이야기하며, 실재하는 것과 허구의 이미지들의 이슬아슬한 경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표



면 밖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강이연의 <BETWEEN>은 이처럼 단지 현실과 가상이라는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BETWEEN의 어원 BETWEONUM처럼, 회화와 미디어아트, 시각(seeing)과 지각(feeling), 기술과 친숙한 일상 등 양자 사이의 경계에 머물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다. 닐 캠벨(Neil Campbell)과 알라스데 키ן(Alasdair Kean)은 경계의 지대란 문을 걸어 닫고 편안하게 등 돌릴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꿈 하는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는 곳이라 하였다. 강이연이 탐구하고자 하는 경계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BETWEEN>은 단순히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전시에서 벗어나 이 것과 저 것, 그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위 ·< Dyslexia-02>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 2009  
아래 ·<Between> 비디오 설치 2009

